

# 소도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노인의 생활행위와 공간이용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Living Activities and the Use of Spaces of the Recuperating Elderly in Nursing homes at Small City

양금석\*

Yang, Kum-Sue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nursing homes. The thorough investigation and observation works were made from the view points of daily living behaviors and behavioral places of the recuperating elderly with dementia in nursing homes.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3 nursing ho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no wide difference between skilled nursing facilities on the characteristic of living behavio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Daily living activities and the use of spaces are largely influenced by the daily program and the operation policy of each nursing homes in addition to human relationship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Common spaces such as day room, dining room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ir daily living activities, because that most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stay long during daytime. Layout of each private room and common space seems very crucial point in designing these facilities, in order to enable demented people to live their lives more independently.

키워드 : 소도시,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 생활행위, 공간이용

Keywords : Small City, Nursing Homes, The Elderly with Dementia, Living Activities, The Use of Space

## 1. 서론

### 1.1 연구목적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였던 것이 2005년에 이미 9%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중소도시의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가속화되어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 수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치매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케어기법이나 다양한 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치매노인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능력이나 환경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판단능력이 저하하기 때문에 오해나 실패로 인하여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요양시설 내에서 요양생활을 지내는 비치매 입소노인의 경우에도 보다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요양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에 걸쳐 요양생활을 지내는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 내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생활행위 내용과 공간이용에 대한 특성을 밝혀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환경 구축을 위한 건축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농촌지역에 분포해 있는 중소도시의 많은 지자체는 고령화 비율이 14%를 초과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10%를 초과한 상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선 전남 장성군<sup>1)</sup>과 경남 고성군의 시설과 고령화 비율이 7%를 넘어선 경남 진주시<sup>2)</sup>

1) 장성군의 2008년 노인인구의 비율은 23.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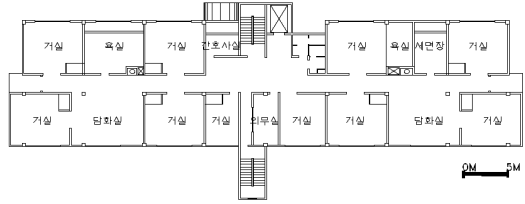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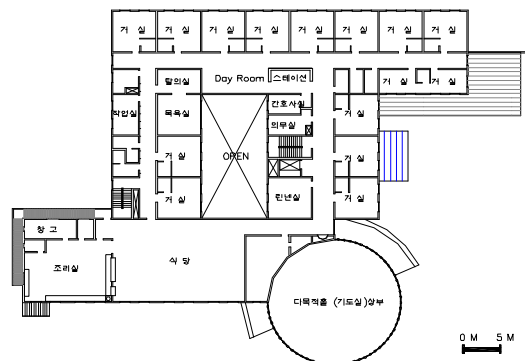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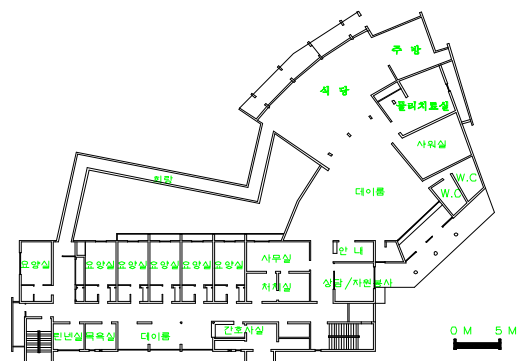
<http://www.jangseong.go.kr/stat/m02/c01.htm> 통계연보

2) 고성군의 2008년 노인인구의 비율은 22.3%, 진주의 2008년 노인인구의 비율은 10.8%로 나타남.

<http://www.stat.jinju.go.kr> 통계연보

\*정회원, 진주산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표 1. 조사대상 시설의 개요

시설	내용		평면구성
JN	개소년도	2001년	
	정원	69명	
	대지면적	3,309㎡	
	연면적	1,652㎡	
	규모	지상2층	
	평면형태	중복도식 일자형	
	생활행위 조사	2009년 6명	
	조사일자	2009년07월06일	
	소재지 (2008년 고령화 비율)	경남 진주 (10.8%)	
CN	개소년도	1999년	
	정원	65명	
	대지면적	15,170㎡	
	연면적	2,682㎡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평면형태	중복도식 중정형	
	생활행위 조사	2009년 5명	
	조사일자	2009년10월28일	
	소재지 (2008년 고령화 비율)	전남 장성 (23.0%)	
GN	개소년도	2000년	
	정원	64	
	대지면적	3,630㎡	
	연면적	1,699㎡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평면형태	중복도식 회랑형	
	생활행위 조사	2009년 5명	
	조사일자	2009년10월28일	
	소재지 (2008년 고령화 비율)	경남 고성 (22.3%)	

의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시설 내 치매노인들의 생활행위를 조사하였다. 시설의 선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평면형태인 중복도식 일자형 시설과 중복도식 중정형 시설과 중복도식 회랑형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담당 간호사에게 조사대상 치매노인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기록을 의뢰하는 양케이트조사를 실시하고, 치매노인의 행위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생활전개가 이루어지는 아침식사 시각부터 저녁 식사 시각까지의 낮 동안의 일상생활 전개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간호사를 통한 치매노인의 기본속성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입원일자, 성별, 간호사분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일상생활에 관한 기본적 행위의 장소와 개호 정도, 그리고 문제행동 및 치매의 정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록하였

다. 공간이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생활실태조사에서는 건강정도에 있어서 시설 내 치매노인의 대표적인 사례의 노인들을 간호사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하고, 치매노인들의 자율적인 생활전개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생활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하였다.(표1 참조)

### 1.3 선행연구 고찰

치매노인의 요양환경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가진 일본의 경우는 고령선진국으로서 거주환경 변화를 시점으로 한 치매노인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나 치매노인의 기본적 행위의 동선에서 본 평면검토<sup>3)</sup> 등 다양

3)小原博之 외 2명, 癡呆性老人施設の建築計劃に關する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59號, 1994, pp.47~57.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오 은진(2000) 등이 건축 환경의 차이가 치매노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sup>4)</sup>하였지만, 간호요원을 그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한 일련의 기존 연구<sup>5)</sup>에서도 치매노인의 요양생활의 실태를 바탕으로 공간이용패턴의 특성 등을 밝혔지만, 하나의 시설에 국한하여 조사를 진행한 특징이 있다.

조사대상의 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입소노인들의 생활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실은 모두 온돌식으로 되어

## 2. 치매노인의 요양생활 조건

### 2.1 요양환경의 기본조건

표 2. 조사대상시설의 생활영역별 바닥면적 및 거실구성

시설	바닥면적(m <sup>2</sup> ) / 입소노인 1인						
	사적영역	준공공영역	공공영역	계	거실		
					2인실	3-4인실	5인실 이상
JN	7.2	3.7	13.0	23.9	1실	1실	6실
CN	7.9	8.8	39.9	56.6	2실	0실	13실
GN	6.8	5.2	14.6	26.6	0실	1실	12실
평균	7.3	5.9	22.5	35.7	·		



<JN시설의 거실과 테이블>



<CN시설의 거실과 테이블>



<GN시설의 거실과 테이블>

그림 1. 조사대상시설의 주요공간 실태

표 3. 조사대상 치매노인의 생활 기본속성

조사시설	치매노인	연령(세)	간호구분	생활자유도	배설		식사		목욕		이동		문제행동	치매정도
					장소	개호정도	장소	개호정도	장소	개호정도	사용기구	개호정도		
JN시설	JN-pt.1	82	3	4	3	1	3	2	4	2	없음	1	없음	1
	JN-pt.2	79	1	1	1	3	1	3	4	3	휠체어	3	없음	2
	JN-pt.3	83	2	3	3	3	3	2	4	2	없음	2	배회	3
	JN-pt.4	74	1	2	1	2	3	2	1	3	휠체어	3	없음	1
	JN-pt.5	69	1	2	3	2	3	2	4	3	휠체어	2	없음	1
	JN-pt.6	78	3	3	1	2	1	2	4	3	없음	1	배회	3
CN시설	CN-pt.1	78	2	2	1	3	4	2	4	3	휠체어	2	욕심	1
	CN-pt.2	73	3	3	1	2	4	1	4	2	없음	1	대성	2
	CN-pt.3	69	2	2	3	1	4	1	4	2	휠체어	2	없음	1
	CN-pt.4	89	1	2	1	3	4	2	4	3	휠체어	3	대성	3
	CN-pt.5	96	1	1	1	3	4	3	4	3	휠체어	3	없음	1
GN시설	GN-pt.1	73	2	3	3	2	4	1	4	3	휠체어	2	失禁	2
	GN-pt.2	82	1	1	2	3	4	3	4	3	휠체어	3	失禁	1
	GN-pt.3	86	1	1	1	3	4	3	4	3	휠체어	3	破衣	3
	GN-pt.4	79	3	4	3	2	4	1	4	2	없음	1	大聲	3
	GN-pt.5	86	2	3	3	2	4	2	4	2	없음	1	失禁	3
	GN-pt.6	69	2	4	3	2	4	2	4	2	없음	1	失禁	2

주: ①간호구분(1=担送, 2=護送, 3=獨步) ②생활자유도(1=항상 누워있는 상태, 2=침대위 기상 가능, 3=거실내 보행 가능, 4=거의 자유로움) ③배설장소(1=침대위, 2=휴대용변기(침대위), 3=거실부속화장실, 4=요양동내 화장실, ④식사장소 (1=침대위, 2=침대 옆, 3=거실내, 4=요양동내 식사실) ⑤목욕장소 (1=침대위, 2=침대위, 3=거실내 세면대, 4=요양동내 개호욕실) ⑥개호정도 (1=자력해결, 2=부분개호, 3=전개호) ⑦치매정도 (1=약함, 2=중간정도, 3=중증)

4) 오은진의 2명, 치매노인의 행동특성과 거주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통권140호, 2000, pp.41~50.  
5) 양금석,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간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2호, 2006, pp.36~45.

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침대사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조사대상 시설의 생활영역별 바닥면적의 구성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는 사적영역 7.3m<sup>2</sup>

/1bed, 준공공영역 5.9m<sup>2</sup>/1bed, 공공영역 22.4m<sup>2</sup>/1bed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JN시설의 경우와 같이 사적영역 7.2m<sup>2</sup>/1bed, 준공공영역 3.7m<sup>2</sup>/1bed, 공공영역 13.0m<sup>2</sup>/1bed로 각각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요양생활을 전개하는데 여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고, CN시설의 경우는 사적영역 7.9m<sup>2</sup>/1bed, 준공공영역 8.8m<sup>2</sup>/1bed, 공공영역 39.9m<sup>2</sup>/1bed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요양생활을 전개하는데 비교적 여유롭다고 판단된다. GN시설의 경우는 사적영역 6.8m<sup>2</sup>/1bed, 준공공영역 5.2m<sup>2</sup>/1bed, 공공영역 14.6m<sup>2</sup>/1bed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요양생활을 지내기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요양시설의 기본적인 면적조건의 차이가 입소노인들의 생활행위 전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사대상 시설 모두 노인요양시설 거실은 입소자 1인당 6.6m<sup>2</sup>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준은 만족시키고 있지만, 거실을 벗어난 요양동 내 공동생활공간의 중심인 준공공영역이 획일화되어 있어 입소노인들의 다양한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한 생활 장소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2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생활일과

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에게 맡겨진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각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일과가 노인들의 요양생활에 변화나 리듬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약조건으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시설별 운영방침을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바를 정리하면, JN시설의 경우는 식사행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양생활을 2층에서 제한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CN시설의 경우는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전개를 유도하고 있으며, 거실군은 2층에 배치되어 있지만, 1층의 공공영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GN시설의 경우는 치매가 심한 노인들을 2층에서 생활하도록 요양실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1층에 공용식당을 설치하여 하루일과 중 식사, 목욕, 리허빌리티이션 등의 시간에는 주기적으로 공공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에 따라서는 식사, 목욕, 체조, 물리치료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적 또는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생활프로그램이 설정된 장소나 생활영역에 따라 입소노인들의 요양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치매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속성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생활을 지내는 치매노인은 속성은 본인은 물론 다른 입소노인의 요양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치매노인의 요양생활상의 속성은 (표 3)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JN시설의 경우 치매노인의 평균연령은 77.5세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기본적 생활행위에 대한 동작능력도 배

설 행위에 있어서 거실부속화장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50.0%였지만, 식사의 경우 침대위에서의 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목욕의 경우에는 침대위에서의 비율이 16.7%였으나 개호욕실 이용은 83.3%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생활행위에 대한 개호에 있어서는 배설의 경우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50.0%,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식사에 있어서는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도 16.7%로 나타났다. 한편 목욕의 경우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66.7%로 나타났으며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도 33.3%로 나타났다.

CN시설의 경우 치매노인의 평균연령은 81.0세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기본적 생활행위에 대한 동작능력도 배설 행위에 있어서 거실부속화장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80.0%였지만, 식사의 경우 요양동내 식사실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목욕의 경우도 개호욕실 이용이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생활행위에 대한 개호에 있어서는 배설의 경우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60.0%,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식사에 있어서는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40%로 나타났으며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도 20%로 나타났다. 한편 목욕의 경우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60%로 나타났으며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도 40%로 나타났다.

GN시설의 경우 치매노인의 평균연령이 79.2세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기본적 생활행위에 대한 동작능력도 배설 행위에 있어서 거실부속화장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66.7%였지만, 식사의 경우 요양동내 식사실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목욕의 경우에는 개호욕실 이용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생활행위에 대한 개호에 있어서는 배설의 경우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66.7%,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식사에 있어서는 자력, 부분개호,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각각 83.3%로 나타났으며, 목욕의 경우 전개호를 요하는 비율이 50%로 나타났으며, 부분개호를 요하는 비율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구분 없이 조사대상 치매노인의 50%이상이 이동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50%이상의 노인이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3. 치매노인의 요양시설 내 생활행위와 공간이용

### 3.1 생활행위 전개특성

치매노인들이 요양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을 지내는 상황은 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조사시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전개 상황을 일과시간의 하루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단편적인 모습을 생활행위 내용별 시간비율로

표 4. 생활행위 내용별 평균 전개시간 비율

(단위: %)

시설	생활행위 구분					
	기본적	정적	여가 취미	요양	이동	문제 행동
JN	7.3	62.5	18.5	7.6	1.4	2.7
CN	12.3	52.3	18.2	6.3	5.8	5.1
GN	15.4	47.1	22.0	9.0	2.1	4.4
평균	11.7	54.0	19.6	7.6	3.1	4.0

평균하여 정리하였다. (표 4. 참조)

조사대상 3개시설의 평균에서는 정적행위의 시간비율이 54.0%를 나타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여가 취미행위의 시간비율이 19.6%로 나타났으며, 기본적 행위 전개시간의 비율이 11.7%, 요양행위 7.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노인들이 일과시간의 4.0%의 시간동안 문제행동을 유발하

표 5. 생활영역별 체제시간의 평균과 비율

시설	생활영역		준공공 영역	공공영역
	사적영역			
	침대위	거실내		
JN시설	359.6 (62.9)	55.3 (9.7)	128.2 (22.4)	28.4 (4.9)
CN시설	297.0 (48.7)	42.1 (6.9)	226.7 (37.2)	44.1 (7.2)
GN시설	37.5 (6.7)	35.9 (6.4)	116.8 (20.9)	369.1 (66.0)
평균	(39.4)	(7.7)	(26.8)	(26.1)

주: 상단의 수치는 평균 체제시간(분)을 하단의 ( )안의 수치는 %를 의미함

고 있음은 시설계획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JN시설의 치매노인의 경우 정적행위의 시간비율이 62.5%로 3개시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시간 비율은 가장 낮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형 중복도라는 요양동의 공간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CN시설의 경우는 정적행위의 시간비율이 52.3%로 나타났으며, 여가취미적 행위의 시간비율이 18.2%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의 비율은 5.8%로 3개시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문제행동의 시간비율도 5.1%로 3시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GN시설의 경우는 3시설 가운데 기본적 행위 15.4%, 요양행위 9.0%, 여가취미행위의 시간비율이 가장 높은 15.4%, 9.0%, 22.0%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정적행위의 시간비율은 가장 낮은 47.1%로 나타났다.

### 3.2 생활영역별 체류특성

치매노인들의 생활영역별 체제시간은 개인별 속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설계획에서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시설 치매노인의 생활영역별 체제시간 평균비율을 정리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JN시설의 경우, 사적영역인 침대위 체제시간의 평균비율이 62.9%, 거실내 9.7%로 나타나 3개 시설 가운데 사적영역에 체류하는 시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영역 체제시간의 평균비율이 22.4%로 나타나 요양동내에서의 생활전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영역에의 체제시간비율은 3시설 가운데 가장 낮은 4.9%에 불과하여 주로 한정된 영역내에서 요양생활을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N시설의 경우도 JN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적영역의 침대위 체제시간 비율이 가장 높은 4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공공영역 체제시간의 비율이 37.2%로 3시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영역 체제시간 비율은 7.2%에 불과하여 일과시간의 92%이상의 시간을 준공공영역 이내의 제한된 영역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N시설의 경우는 침대위와 거실내의 사적영역의 범위에 체제하는 시간비율이 13.1%에 불과하여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준공공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영역 체제시간의 비율이 66.0%나 되어 시설 운영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 침실을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평균 측면에서도 침대위 39.4%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치매노인들이 거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계획 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3 생활행위와 생활영역의 관계

각 시설별 치매노인의 생활행위 전개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생활행위와 생활영역의 관계 측면에서 체제시간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6~표 8)과 같다.

JN시설에 있어서는 기본적 행위의 식사도 침대위에서 22.3분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설행위도 침대위에서 3.2분, 거실내에서 3.1분으로 나타나 생활행위 전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적행위에 하루생활 시간의 6할을 사용하는 실태 속에서 침대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평균 191.2분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침대위에서 무위상태나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시간이 122.6분으로 요양생활이 무미건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취미행위는 준공공영역에서의 TV시청이 60.3분으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와 재활훈련은 준공공영역에서의 시간이 23.5분으로 나타났다.

CN시설에서는 기본적 행위의 식사도 준공공영역에서 47.3분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설행위도 침대위에서

표 6. 치매노인의 생활행위와 생활영역의 관계(JN시설)

생활행위		체류 평균시간(분)					계
		사적영역			준공공영역	공공영역	
		침대위	거실내	소계			
기본적	식사	22.3	6.3	28.6	1.2	0	29.8
	배설	3.2	3.1	6.3	0	0	6.3
	청결유지	4.1	0.3	4.4	0	0	4.4
	정리정돈	1.1	0.1	1.2	0	0	1.2
정적	수면	191.2	3.5	194.7	0	0	194.7
	무위	77.3	20.1	97.4	10.6	0	108
	바라봄	45.3	9.2	54.5	0	0	54.5
여가·취미	취미	0	0	0	0	0	0
	시청	0	0	0	60.3	0	60.3
	읽기, 쓰기	0	0	0	0	0	0
	산책, 거닐	0	0.3	0.3	3.5	2.4	6.2
	담화	6.6	4.5	11.1	15.7	12.3	39.1
	전화	0	0	0	0	0	0
요양	치료	2.3	0.2	2.5	3.4	3.1	9
	재활훈련	4.5	0.5	5	20.1	9	34.1
이동		0.5	2.1	2.6	4	1.6	8.2
문제행동		1.2	5.1	6.3	9.4	0	15.7
계		359.6	55.3	414.9	128.2	28.4	571.5

표 7. 치매노인의 생활행위와 생활영역의 관계(CN시설)

생활행위		체류 평균시간(분)				
		사적영역			준공공영역	공공영역
		침대위	거실내	소계		
기본적	식사	10.1	1.5	11.7	47.3	0
	배설	4.5	1.2	5.7	0	0
	청결유지	3.3	2.8	6.1	0	0
	정리정돈	3.4	1.1	4.5	0	0
정적	수면	177.2	10.1	187.3	0	0
	무위	43.1	1.2	44.3	36.7	0
	바라봄	8.2	4.2	12.4	32.9	5.2
여가·취미	취미	0	5.2	5.2	6.2	6.5
	시청	24	6.1	30.1	40.2	0
	읽기, 쓰기	0	0	0	0	0
	산책	0	0	0	2.4	0
	담화	2.2	0.8	3	6.3	11.4
요양	전화	0	0	0	0	0
	치료	3.6	2.4	6	0.9	0
재활훈련		0.8	0	0.8	15.7	14.8
이동		0.3	5.2	5.5	23.5	6.2
문제행동		16.3	0.3	16.6	14.6	0
계		297	42.1	339.2	226.7	44.1

4.5분, 정리정돈이 침대위에서 3.4분 등으로 나타나 침대위에서 비교적 다양한 행위를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행위에 있어서는 침대위에서의 수면시간이 177.2분, 무위행위의 시간이 43.1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표 8. 치매노인의 생활행위와 생활영역의 관계(GN시설)

생활행위		체류 평균시간(분)				
		사적영역			준공공영역	공공영역
		침대위	거실내	소계		
기본적	식사	0	0	0	0.6	30.4
	배설	0.6	3.9	4.5	1.8	0.8
	청결유지	0.3	10.3	10.6	12.1	19.7
	정리정돈	0	0.4	0.4	0	1.1
정적	수면	5.2	0	5.2	0	40.1
	무위	25.6	10.8	36.4	25.1	70.3
	바라봄	0	5.2	5.2	2.1	67.1
여가·취미	취미	0	0	0	0	0.5
	시청	0	0	0	36.3	60.8
	읽기, 쓰기	0	0	0	0	0
	산책, 거닐	0	0	0	3.3	3.1
	담화	5.2	0	5.2	4.3	20.3
	전화	0	0	0	0	0
요양	치료	0.6	0.3	0.9	0	0.4
	재활훈련	0	0	0	12.5	42.1
이동		0	0.5	0.5	8.3	4.2
문제행동		0	4.5	4.5	10.4	8.2
계		37.5	35.9	73.4	116.8	369.1

가취미행위의 대부분은 준공공영역에서의 TV시청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담화시간은 준공공영역과 공공영역에서는 17.7분밖에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양행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치료시간은 7분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영역과 준공공영역에서의 문제행동 전개시간이 31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영역에는 문제행동에 대비한 배려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GN시설에서는 기본적 행위의 식사도 공공영역에서 30.4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설행위는 거실내에서 3.9분, 청결유지가 거실내에서 10.3분 동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적행위는 공공영역에서 수면 40.1분, 무위 70.3분, 바라봄 67.1분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나 177.5분 동안 공공영역에서의 정적행위에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취미행위 가운데 TV를 시청하는데 준공공영역에서 36.3분, 공공영역에서 60.8분을 보낸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요양행위의 치료시간은 각 영역별로 1분미만 전개되었지만, 재활훈련에는 공공영역에서 42.1분이나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의 유발은 준공공영역과 공공영역에서 각각 10.4분, 8.2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치매노인의 요양생활상 사회적 행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에 걸쳐 요양생활을 보내는 입소노인들은 시설입소와 동시에 재택생활 시에서 유지하여 온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요양생활을 하는 치매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사회적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요양시설 치매노인들은 주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의 활발한 전개가 유도되어야 개개인의 ADL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행위에 대해 시설별로 조사대상 치매노인들의 사회적 행위의 시간을 교류대상별로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3시설 모두 조사시점에서는 의사와의 사회적 행위시간은 조사되지 않았다. JN시설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 시간의 평균은 128.8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치료사와의 사회적 행위 시간이 66.9분으로 가장 많고, 다른 입소노인과의 사회적 행위 시간이 그다음으로 많은 2.1분 등으로 나타났다. CN시설의 경우, 사회적 행위 시간의 평균은 145.4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보조사와의 사회적 행위시간이 66.7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물리치료사와 39.5분, 다른 입소노인과 36.2분 사회적 행위를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GN시설의 경우, 사회적 행위 시간의 평균은 153.8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보조사와의 사회적 행위시간이 66.7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물리치료사와 50.8분, 다른 입소노인과 33.8분 사회적 행위를 전개한 것으로 나

표10. 사회적 행위의 생활영역별 전개시간의 평균

행위 내용	시설	생활영역별 평균시간 (분)				
		사적영역		준공공 영역	공공 영역	계
		침대위	침실내			
사고 행위	JN시설	11.4	3.2	37.7	4.5	56.8
	CN시설	9.2	2.4	35.2	12.2	59.0
	GN시설	24.6	0.4	2.2	2.1	29.3
	평균	15.07	2.00	25.03	6.27	48.37
협동 행위	JN시설	0.0	0.0	0.0	0.0	0.0
	CN시설	0.0	0.0	0.0	0.0	0.0
	GN시설	0.0	0.0	0.0	0.0	0.0
	평균	0.00	0.00	0.00	0.00	0.0
지원 행위	JN시설	25.2	9.3	36.4	1.1	72.0
	CN시설	36.7	11.5	33.5	4.8	86.5
	GN시설	22.3	2.4	21.0	58.8	104.5
	평균	28.07	7.73	30.30	21.57	87.67

타났다. 3시설 모두 입소 치매노인 개개인 입장에서는 간호사와의 사회적 행위시간은 평균 3분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요양시설 치매노인들의 사회적 행위의 주 대상은 시설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다른 입소노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조장될 수 있는 생활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치매노인들의 사회적 행위시간의 실태를 사고행위, 협

표 9. 조사대상시설별 치매노인의 사회적 행위의 전개시간

시설	치매노인	치매정도	교류시간 (sec)					계
			의사	간호사	개호사 (생활보조원)	다른 입소노인	기타 (물리치료사)	
JN시설	JN-pt.1	중간	0.0	28	1,285	1,875	2,940	6,128
	JN-pt.2	약함	0.0	45	982	1,365	2,485	4,877
	JN-pt.3	중증	0.0	120	1,460	4,782	2,443	8,805
	JN-pt.4	중간	0.0	165	935	2,275	1,864	5,239
	JN-pt.5	약함	0.0	85	740	1,243	11,215	13,283
	JN-pt.6	중증	0.0	125	1,126	3,642	3,142	8,035
	평균시간 (min)		0.00	1.58	18.13	42.17	66.91	128.79
	평균시간 비율(%)		0.0	1.20	14.10	32.75	51.95	100
CN시설	CN-pt.1	약함	0	176	6,425	1,426	3,751	11,778
	CN-pt.2	중간	0	182	1,425	753	1,580	3,940
	CN-pt.3	약함	0	185	1,726	5,540	2,900	10,351
	CN-pt.4	중증	0	128	5,078	2,050	1,860	9,116
	CN-pt.5	중증	0	175	5,385	1,105	1,786	8,451
	평균시간 (min)		0.00	2.82	66.79	36.25	39.59	145.45
	평균시간 비율(%)		0.0	1.94	45.92	24.92	27.22	100
GN시설	GN-pt.1	중간	0	162	1,753	1,620	2,973	6,508
	GN-pt.2	약함	0	93	1,524	1,603	4,925	8,145
	GN-pt.3	중증	0	185	4,162	983	2,872	8,202
	GN-pt.4	중증	0	172	4,644	1,430	2,241	8,487
	GN-pt.5	중증	0	138	5,898	3,662	1,624	11,322
	GN-pt.6	중간	0	125	6,350	2,870	3,672	13,017
	평균시간 (min)		0.00	2.43	66.75	33.80	50.85	153.83
평균시간 비율(%)		0.0	1.58	43.39	21.97	33.06	100	



동행위, 지원행위로 나누어 (표10)에 정리한 바와 같이 3 시설 모두 협동행위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지원행위가 가장 많은 87.6분동안 전개되었으며, 사교행위가 그 다음으로 많은 48.3분 동안 전개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시설에서의 치매노인들의 사회적 유지의 행위는 주로 생활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담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교행위의 시간은 사적영역에서 17분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공공영역에 있어서는 일자형 평면형식의 JN시설에서는 중복도형 CN시설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GN시설의 경우는 가장 적은 2.2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행위에 있어서는 3시설 모두 생활영역의 각 단계에서 행위전개가 조사되었으며, JN시설과 CN시설의 경우는 사적영역의 침대위와 준공공영역에서의 지원행위 전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GN시설이 경우는 공공영역에서의 전개시간이 현저하게 많았다. 치매노인들의 사회적 행위의 전개가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생활전개 리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각 영역별로 다양한 성격의 개성 있는 장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 4. 결 론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생활을 보내는 치매노인의 생활행위와 공간이용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얻어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시설 내 치매노인들의 요양생활은 운영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상생활행위의 내용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보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의 다양한 단계에 변화있는 생활 장소의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일자식 중복도형 시설의 경우, 배회성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회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정형 시설의 경우에도 생활의 자율성이 강화하는 시설운영을 취하는 경우에는 치매노인들의 거실 내 생활시간이 많으므로 개성에 맞는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준공공영역은 물론, 공공영역에도 변화성 있는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치매노인들에게 24시간 일상생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원과 물리치료사가 사회적 행위의 주요 대상으로 역할을 하므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서비스의 거점을 분산하여 배치하고, 지원행위와 사교행위 및 협동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요양동내에 담화코너나 공동작업공간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 중요하다.

나아가 기본적 생활행위의 자율적 전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내 생활영역마다 설비를 충실히 하면 입소치매노인들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부담 경감은 물론, 치매노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오은진의 2명, 치매노인의 행동특성과 거주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통권140호, 2000
- 2) 양금석,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간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2호, 2006
- 3) 小原博之외 2명, 癡呆性老人施設の建築計劃に關する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59號, 1994,
- 4) <http://www.jangseong.go.kr/stat/m02/c01.htm> 통계연보
- 5) <http://www.stat.jinju.go.kr/> 통계연보

(접수: 2010.04.10, 심사완료: 2010.05.06)